

주간 통일정세

2017-15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4.8	北 김정은, 평양버섯공장 시찰...박봉주 총리 동행(연합뉴스)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4주년...김정은 유일영도' 강조(연합뉴스)
	4.9	김정은, 100세 맞은 할머니에 생일상 보내(연합뉴스)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 개막(연합뉴스) 北매체,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4주년 띄우기(연합뉴스)
	4.10	北김여정, 9개월만에 공개활동 포착...만수대 참배(연합뉴스)
		北최고인민회의 참가자 평양 집결...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연합뉴스)
		北 "김일성, 66만 점 선물받아"...첫돌 선물은 낫그릇(연합뉴스)
	4.11	김정은, 전국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에 악기 선물(연합뉴스)
		北 외무성 부상, 스톡홀름 테러 관련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 조의 방문(연합뉴스)
		북한군, 김일성 생일 앞두고 김정은에 충성맹세 예식(연합뉴스)
		北, 김정은 추대 5돌 중앙보고대회..."핵강국 위력 강화"(연합뉴스)
		北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참석, 외교위원회 선출(연합뉴스)
		김정은 추대 5주년 경축 무도회 개최(연합뉴스) 김정일 주석 업적 기념 우표 전시회 개최(연합뉴스)
	4.12	北 김원홍 인사조치 없어...'불참' 미뤄 숙청은 사실인 듯(연합뉴스)
		별 뺏다가 붙였다가...北 김정은 '계급장 길들이기' 여전(연합뉴스)
		北 외교위원회 19년만에 부활, 대외 유화공세 전환 포석?(연합뉴스)
		北간부, 최고인민회의서 줄줄이 자아비판...김정은 따라하기(연합뉴스)
		北김여정, 최고인민회의 참석...대의원증 들어 표결 참여(연합뉴스) 김영남·박봉주·최룡해, 김일성 생일 앞두고 만경대 방문(연합뉴스)
	4.13	北, 외신 불러 여명거리 준공식 개최...김정은 참석(연합뉴스)
		美 군사압박 속 北 김정은, 특수부대 '타격대회' 참관(연합뉴스)
北 김여정, 오빠 의전에 경호까지 챙겨...실세 '인증'(연합뉴스) 北,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5돌 맞아 핵업적 부각(연합뉴스)		
4.14	北 매체 "여명거리, 강국 건설 속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줘"(연합뉴스)	
	北 조평통, 김일성 찬양 비망록 발표..."핵 강국 존엄 떨쳐"(연합뉴스)	
경제	4.8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북-미 교역 전혀 없어"(연합뉴스)

	4.11	중국, 북한 석탄 수입회사에 '북에 반환하라' 지시(연합뉴스)
		"폴란드 지방정부, 작년 北노동자 360명에 노동허가증"(연합뉴스)
	4.12	말레이, 불법체류 北근로자 117명에 최후통첩 "1주일내 나가라"(연합뉴스)
		"변화하는 北 경제...시장에선 콜라 팔고, 백화점선 달러 환전"(연합뉴스)
4.13	"北, 2015년까지 매달 1억 원 이상 비트코인 탈취"(연합뉴스)	
	대만, 유엔 대북제재 동참...북한산 광물 35개 품목 수입규제(연합뉴스)	
	중국 해관 "2월 18일 이후 북한산 석탄 수입 없다"(연합뉴스)	
4.14	대북제재에도 1분기 북·중 교역액 큰 폭 증가(연합뉴스)	
사회 문화	4.9	"北, 중고생 수업시간에 핵·미사일 원리 교육"(연합뉴스)
	4.10	北 "전역에 연령대별 고아원 건설"...대대적 선전(연합뉴스)
	4.11	"北, 김일성 생일에 외신기자 평양에 대거 초청"(연합뉴스)
	4.12	北, 보건·교육·과학 투자 확대..."민생 다독이는 차원"(연합뉴스)
		北 고려호텔 구조런 스타일 벗고 리모델링 재개장(연합뉴스)
	4.13	北 김일성대, 울여름 외국인 상대 '한국어 서머스쿨' 개최(연합뉴스)
4.13	"北 장애학생들, 다음달 영국 공연...비판 목소리도"(연합뉴스)	
외교 국방	4.8	北리종혁, IPU 총회서 美에 대북정책 전환 촉구(연합뉴스)
		北, 美 시리아 공격에 첫 반응..."그에 놀랄 우리가 아냐"(연합뉴스)
	4.9	트럼프 정부 "北 태도변화 없는 한 대화 없다...北·中제재 강화"(연합뉴스)
	4.10	美NSC 보좌관 "트럼프, 모든 대북 옵션 준비 지시해"(연합뉴스)
		조선신보, 美항모 한반도 재전개에 "날강도식 위협공갈"(연합뉴스)
	4.11	美국무부 "北과의 대화재개 조건 불변...비핵화·WMD 포기 필요"(연합뉴스)
		우다웨이 "中 어떤 경우든 북한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연합뉴스)
		동병상련?...美압박에 김정은-아사드 '격려성 축전' 교환(연합뉴스)
	4.12	남아공 "北 외교관 줄이고 금융계좌 감시 강화"(연합뉴스)
		백악관 "트럼프 행동할때 시리아처럼 단호하고 비례적으로 대응"(연합뉴스)
	4.13	트럼프 "김정은 큰 실수하고 있다...美군대, 지구 최강"(연합뉴스)
		北, 국방비 비중 유지...핵 개발 미완성 사실상 '시인'(연합뉴스)
백악관 대변인, 북핵 질문에 "트럼프는 단호하게 조치"(연합뉴스)		
北 "美, 조선반도를 핵전쟁 접경으로 몰아가"(연합뉴스)		
중외교부 "북중, 정상적인 왕래유지"...우다웨이 방북가능성 시사(연합뉴스)		
"北, 예비군 조직도 군사훈련 동원...경계태세 강화"(연합뉴스)		
IAEA 사무총장 "북한, 핵개발 활동 꾸준히 진행...긴장 높아져"(연합뉴스)		
美매체 "北풍계리 핵실험 준비 완료"...15일 감행하나(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4.8	평양 버섯공장 공개활동	박봉주, 조용원, 마원춘	
4.11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 참석	-	
4.13	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 타격경기대회 2017 공개활동	황병서, 리명수, 리영길, 김영복, 유림호, 김명식, 허영춘, 김광혁, 손철주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4. 8.

■ 北 김정은, 평양버섯공장 시찰...박봉주 총리 동행(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버섯공장을 시찰하고 북한을 '버섯의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 노동당의 결심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김정은은 공장을 둘러보면서 "원료 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통합생산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결과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됐다"면서 "당의 국산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했다"고 발언함.
- 그는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유훈대로 우리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려는 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며 "버섯 재배에서도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기술·기능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라"고 지시함.

2017. 4. 9.

■ 김정은, 100세 맞은 할머니에 생일상 보내(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00번째 생일을 맞는 자강도의 리유순 할머니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2017. 4. 11.

■ 김정은, 전국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에 악기 선물(연합뉴스)

- 김정은 위원장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에 악기를 선물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함.

2017. 4. 13.

■ 北, 외신 불러 여명거리 준공식 개최...김정은 참석(연합뉴스)

- 평양을 방문 중인 복수의 외신 취재진은 이날 김정은이 참석하는 가운데 여명거리 준공식이 열렸다고 보도함.

-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의 베이징 특파원인 제러미 고 기자는 이날 오후 2시께 (한국시간) 게재한 평양발 트윗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오늘 아침 평양 여명 거리의 준공식(opening)을 주재했다"고 보도함.
- 외국 취재진의 현장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 간부들이 준공식에 참석함.

■ **美 군사압박 속 北 김정은, 특수부대 '타격대회' 참관(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 타격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가 13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특수부대 훈련에 대해 "특수작전부대들과 경수송기 부대들의 협동 지휘 실현 및 적 후방 침투, 대상물 타격, 전투 정황 속에서의 실탄사격, 타격대들의 비행대 호출 및 목표 지시에 의한 무장 직승기(헬기) 편대의 타격 능력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보도함.
-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은 "지휘관들의 결심 채택이 정확하다"며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전투원들은 남반부(한국)의 산발(산맥)을 주름잡으며 내달리는 맹호를 방불케 한다"고 발언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4. 10.

■ **北 김여정, 9개월만에 공개활동 포착...만수대 참배(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11일)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평양 만수대 언덕에 세워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에 헌화하는 사진을 공개함.
- 김여정은 꽃다발을 들고 참배자 대열의 두 번째 줄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됨.
- 중앙통신은 이날 참배에 대의원들과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으나, 김여정을 호명하지는 않음.

2017. 4. 11.

■ **北 외무성 부상, 스톡홀름 테러 관련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 조의 방문(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한성렬 부상 등이 스웨덴 스톡홀름 트럭 돌진 테러와 관련해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을 조의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2017. 4. 12.

■ 北 김원홍 인사조치 없어…'불참' 미뤄 속칭은 사실인 듯(연합뉴스)

- 북한이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에서 최근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우리의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발표하지 않음.
- 김정은의 공포통치를 뒷받침하며 '실세'로 위세를 떨치던 김원홍은 지난 1월 중순 당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대장(별 4개)에서 소장(별 1개)으로 강등된 이후에 해임됐다고 통일부가 밝힌 바 있음.
- 김원홍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직에서 '소환'(자격 박탈)될 거라고 예상되었으나,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그를 '소환'하지 않았음.

■ 별 뺏다가 붙였다가…北 김정은 '계급장 길들이기' 여전(연합뉴스)

- 럽철성 북한군 총정치국 선전 담당 부국장이 최근 중장(별 2개)에서 상장(별 3개)으로 진급한 사실이 북한 매체를 통해 12일 확인됨.
- 김정은 체제의 선전분야 핵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럽철성은 이전에도 중장에서 소장(2014년 2월)으로 강등됐다가 다시 중장(2014년 7월)으로 올라가는 등 계급 변동을 겪은 바 있음.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계급이 수차례 변동되었던 박정천 북한군 포병국장도 중장에서 상장으로 다시 진급한 것이 확인됨.

■ 北 외교위원회 19년만에 부활, 대외 유화공세 전환 포석?(연합뉴스)

- 북한이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교위원회를 19년 만에 다시 설치함.
- 북한이 11일 발표한 외교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는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선출됨.
- 리수용은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을 바탕으로 30년간 제네바를 비롯한 유럽에서 활동하는 등 평생을 외교 분야에 종사했으며, 외교위원 중 가장 먼저 호명된 리룡남 내각 부총리는 무역성(현재 대외경제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외경협 전문가임.

■ 北간부, 최고인민회의서 줄줄이 자아비판…김정은 따라하기(연합뉴스)

- 지난 11일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에

- 서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연설에서 자책성 발언을 함.
- 박봉주 내각 총리는 지난 회의때와 달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해 경제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함께 결함도 거론했으며, 기광호 북한 재정상은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돌이켜보면서 저를 비롯한 재정부문 일군들은 당의 재정정책집행과 나라살림살이를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높은 책임감과 자각이 없었다"고 발언함.
 - 또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지만,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바로 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자책했으며, 장혁 철도상과 리종국 기계공업상 등 14명의 연설자도 자기 단위와 분야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지적하며 지도자를 향해 충성을 맹세함.

■ 北 김여정, 최고인민회의 참석…대의원중 들어 표결 참여(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자 2면 상단 오른쪽에 실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 참석자들의 사진에서 김여정이 회의장에 앉아 신분증을 들어 보이는 모습이 포착됨.
- 지난해와 올해 사진을 비교해볼 때 김여정의 장내 좌석 위치는 동일한 것으로 보임.

■ 김영남·박봉주·최룡해, 김일성 생일 앞두고 만경대 방문(연합뉴스)

-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김일성 주석의 105돌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앞두고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함.

2017. 4. 13.

■ 北 김여정, 오빠 의전에 경호까지 챙겨…실세 '인증'(연합뉴스)

- 김여정은 노동당 제7차 대회 중 김정은 곁에서 축하 꽃다발을 직접 받아 챙겨주는 등 의전을 직접 주관하는 모습을 보임.
- 여명거리 준공식에서도 김여정은 김정은의 경호 책임자로 보이는 중장 계급의 군인과 행사장 쪽으로 나란히 걸어오며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뒤 뭔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

- 주로 의전을 담당하던 김여정의 영향력이 경호 분야까지 확대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함.

다. 공식행사

2017. 4. 8.

-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4주년...‘김정은 유일영도’ 강조(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4돌 중앙보고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함.
 -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은 보고에서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길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결정적 담보가 있다"고 강조함.
 - 이날 보고대회 행사장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이 참가함.

2017. 4. 9.

-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 개막(연합뉴스)**
 -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개막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함.
 - 첨단·과학 기술 개발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전에는 국가과학원, 전력공업성, 김일성종합대학 등에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농민 등이 참가함.

2017. 4. 10.

- **北최고인민회의 참가자 평양 집결...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이날 평양 만수대 언덕에 세워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에 헌화했다고 보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이 참가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함.
 - 대의원들은 평양 대성산혁명열사릉에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조모 김정숙의 동상에 헌화했으며, 고아를 위한 교육기관인 평양초등학교와 평양가방공장도 참관함.

2017. 4. 11.

■ **북한군, 김일성 생일 앞두고 김정은에 충성맹세 예식(연합뉴스)**

- 북한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 장병들이 10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경의를 표하고 김정은에게 충정을 맹세하는 예식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가 11일 보도함.
- 이 자리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이 참석함.
- 행사에서는 군악단의 예식에 이어 참가자들이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향해 경의를 표했으며 예포 21발이 발사됨.

■ **北, 김정은 추대 5돌 중앙보고대회…“핵강국 위력 강화”(연합뉴스)**

- 북한이 1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4월11일)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4월13일) 5주년을 맞아 중앙보고대회를 열어 '핵강국 위력' 강화를 주장함.
-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주석단에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나왔다고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함.
- 이날 보고를 맡은 최룡해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새로운 승리와 번영의 시대를 펼친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발표함.

■ **北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참석, 외교위원회 선출(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함.
- 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내각 과업, 예·결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에 대한 법령집행 총화 등이 안건으로 논의됨.
- 최고인민회의 결의 등의 형태로 특별한 대외·대남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았음.

■ **김정은 추대 5주년 경축 무도회 개최(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4월 11일) 5주년을 경축하는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가 당창건기념탑, 개선문, 평양체육관광장 등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김정일 주석 업적 기념 우표 전시회 개최(연합뉴스)**

-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을 앞두고 조선우표전시장과 조선우표박물관에서 우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가 11일 보도함.
- 전시회에는 김 주석의 업적을 추켜세우는 수백 종류의 우표가 전시돼 있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4. 9.

■ **北매체,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4주년 띄우기(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1면 톱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함.
- 신문은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82(1993)년 4월 9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지니신 것은 주체의 선군혁명 위업 수행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 사변이었다"고 보도함.
-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밑에 인민군대가 사상과 신념의 강군, 최정예 전투 대오로 강화되고 우리 조국은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고 주장함.

2017. 4. 10.

■ **北 “김일성, 66만 점 선물받아”…첫돌 선물은 늦그릇(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1913년 4월 15일 (김일성 생가 인근) 칠골 인민들이 탄생일을 맞으시는 수령님께 늦합을 올린 때로부터 한 세기 이상의 장구한 나날 우리 인민과 해외동포들, 남녘 겨레들이 삼가 드린 선물은 무려 66만여 점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환갑을 맞이한) 1972년 4월 한 달 동안에만도 김일성 동지께 우리 인민이 지성 어린 선물을 올린 것은 무려 9천180여 차(례)에 달한다"고 보도함.
- 신문은 "해의 동포들과 남조선 인민들이 9만4천여 점에 달하는 진귀한 선물들을 올리었다"고 보도함.

2017. 4. 13.

■ 北,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5돌 맞아 핵업적 부각(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이날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 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추대 이후 '탁월한 선군영도' 아래 북한이 핵 강국으로서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주장함.
- 이 매체는 "조국을 지구 상 그 어디에 있는 원수도 일격에 짓부실 수 있는 강위력 한 핵 공격 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핵강국, 군사대국으로 위용 떨치게 하신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께서 이룩하신 거대한 민족사적 업적"이라고 주장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수령복, 장군복 영원한 우리 조국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라는 글에서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어 그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라고 보도함.

2017. 4. 14.

■ 北 매체 “여명거리, 강국 건설 속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줘”(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여명거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운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전하는 상보(詳報·사안을 상세하게 풀어쓴 보도)'에서 "불과 1년이라는 기간에 함경북도(홍수) 피해 복구 전투를 벌이면서도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거리를 희한하게 일떠세웠다"고 주장함.
- 통신은 "당의 독창적인 주체적 건축 미학 사상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벽하게 실현된 70층을 비롯한 초고층 살림집들과 현대적인 봉사시설들로 조화를 이뤘다"며 "위대한 김정은 조선의 대비약의 상징으로 빛나고 있다"고 여명거리를 홍보함.
-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영도 밑에 평양에 웅장하게 일떠선 여명거리는 사회주의 강국의 찬란한 여명을 마중해가는 주체 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누리에 떨쳤다"고 주장함.

■ **北 조평통, 김일성 찬양 비망록 발표…“핵 강국 존엄 떨쳐”(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김일성의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이틀 앞둔 13일 발표한 1만3천여 자 분량의 비망록에서 "불세출의 최고 영도자 동지를 높이 모시어 오늘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위의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 존엄을 떨치고 있다"고 주장함.
- 비망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한평생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졌다"며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인 조국 통일을 위해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쳤다"고 보도함.
- 또한 6·25 전쟁 이후 인생을 찬양하면서 그가 1994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급사한 것과 관련해 "심장의 고통을 멈추신 것은 반만년 민족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최대의 상실이였다"고 주장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2017. 4. 12.

■ **“변화하는 北 경제…시장에선 콜라 팔고 백화점선 달러 환전”(연합뉴스)**

- AFP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평양 시내 길거리에선 즉석 시장을 열어 채소를 판매하고, 시장에선 상인들이 코카콜라 같은 수입제품을 거래하는 모습이 목격된다고 보도함.
- 관영 백화점에서 달러 등 주요 외화를 암시장과 같은 환율로 공개 환전해주기도 함.
- 김일성 주석의 치적으로 손꼽히던 협동농장은 사실상 해체되어 가족 단위로 일정 토지를 나눠줘 식량을 자급하도록 했고, 일정 생산량을 국가에 상납하면

나머지는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해 기업 관리자들이 알아서 생산처와 판매처를 물색할 수 있도록 함.

2017. 4. 13.

■ “北, 2015년까지 매달 1억 원 이상 비트코인 탈취”(연합뉴스)

- 인터넷 보안전문업체인 '하우리'의 최상명 실장은 RFA에 북한이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후 해커들을 동원해 2주 만에 약 4천만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빼갔다면서 "그 뒤로도 대략 한달에 억 단위 이상 비트코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함.
- 이어 "최근 인터넷 범죄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신경 쓰는 것이 비트코인"이라면서 "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고 북한도 이런 흐름에 편승해서 지난 2012년경부터 관심을 갖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발언함.
- 최 실장은 북한의 비트코인 확보 작업을 2015년까지 확인했다며 "다만 비트코인 담당 해커들이 좀 더 큰돈을 벌기 위해 다른 분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4. 8.

■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북-미 교역 전혀 없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두 달 동안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해 북한과 모든 교역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무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미국과 북한의 교역은 없었음.
- 지난해 10월 10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 물품이 북한에 전달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북-미 교역이 전무함.

2017. 4. 11.

■ 중국, 북한 석탄 수입회사에 ‘北에 반환하라’ 지시(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을 북한에 반환하도록 무역회사에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통신은 북한으로부터 가장 많은 석탄을 수입하는 회사인 단둥첵타이무역회사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현재 단둥첵타이무역회사가 60만의 석탄을 반환하기 위해 중국 항구에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200만이 북한에 반환되기 위해 항구에 묶여 있다고 설명함.

■ **“폴란드 지방정부, 작년 北노동자 360명에 노동허가증”(연합뉴스)**

- 폴란드 중앙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북한 노동자의 입국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지방 정부는 지난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RFA가 입수한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폴란드 지방 정부는 북한 노동자 360여 명에게 노동허가증을 신규 발급했고, 그중 55명은 여성임.
- RFA는 폴란드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2천 800여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자체 연구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보도함.

2017. 4. 12.

■ **말레이, 불법체류 北근로자 117명에 최후통첩 “1주일내 나가라”(연합뉴스)**

- 말레이시아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잠적한 북한 근로자 117명에게 1주일 이내에 전원 자수하라고 요구함.
- 12일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스타파 알리 말레이시아 이민국 국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이미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발언함.
- 마시르 쿠자트 말레이시아 내무부 차관은 "잠적한 북한 근로자들은 현재 사라왁주 쿠칭과 빈톨루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민국과 공조해 이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언함.

2017. 4. 13.

■ **대만, 유엔 대북제재 동참…북한산 광물 35개 품목 수입규제(연합뉴스)**

- 13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리청란(李澄然) 외교부 상무차장(차관)은 전날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을 중단했다고 밝힘.

- 유엔이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조치로, 수입금지 대상 품목에는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 광물자원 35개 품목이 포함됨.
- 이에 대해 대만 경제부는 지난달 북한산 광물 35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를 예고했다며 사실상 이때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이 중단됐다고 설명함.

■ 중국 해관 “2월 18일 이후 북한산 석탄 수입 없다”(연합뉴스)

- 13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에 따르면 황쑹평(黃頌平) 해관총서 대변인은 이날 '2017년 1분기 수출입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북한산 석탄 반송을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꺼리면서도 중국 정부가 대북 운송 금지 조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힘.
- 황쑹평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해 지난 2월 18일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북한산 석탄 수입 잠정 중단 공고를 발표한 뒤 다음날부터 잠정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언함.
- 그는 "이 공고를 실시한 이래 중국 해관은 북한산 석탄의 수입 수속을 허가하지 않았고 중국 해관은 대북 운송 금지 조치에 대한 안보리 결의와 유관 국내법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고 주장함.

2017. 4. 14.

■ 대북제재에도 1분기 북·중 교역액 큰 폭 증가(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도 북한과 중국의 올해 1분기 교역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중국 해관총서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3월 북·중 교역액은 약 12억 달러(약 1조3천 6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 증가함.
- 또한 북·중 교역 관문인 중국 취안허세관이 늘어나는 교역 수요에 맞춰 시설 증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4. 10.

■ 北 “전역에 연령대별 고아원 건설”…대대적 선전(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전국 각지에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훌륭히 건설되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맞으며 전국의 각 도에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훌륭히 일떠섰다"고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함경북도에서는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을 시작해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청진 초등학교·중등학교를 완공했으며, 황해남도에서는 해주 초등학교·중등학교를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건설함.
- 신문은 "원수님(김정은)께서는 우리 아이들은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고 하시며 각 도에 교육 환경과 생활 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건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해주시었다"고 주장함.

2017. 4. 11.

■ “北, 김일성 생일에 외신기자 평양에 대거 초청”(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11일 "일본 언론 12곳을 비롯한 외신들이 오늘 북한 초청으로 평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22일까지 평양에 체류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받았다"고 설명함.
- 정부에서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5돌 생일(태양절·4월 15일) 관련 행사를 홍보하고자 외신 기자들을 초청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 또한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와 유럽의 일부 언론들이 24~28일 일정으로 평양에 들어오라는 북한의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인민군 창건일 관련 행사를 취재하도록 하기 위한 것 같다"고 설명함.

2017. 4. 12.

■ 北, 보건·교육·과학 투자 확대…“민생 다독이는 차원”(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지난해 국가예산 집행 결산과 올해 국가예산에 대해 보고한 재정상 기광호 대의원은 올해 북한의 지출은 지난해보다 105.4%로 늘어난다고 발표함.
- 가장 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된 부문은 '보건'으로, 지난해의 113.3%로 보고됐으며 뒤이어 교육(109.1%), 과학기술(108.5%) 등이 지출 확대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4. 9.

- “北, 중고생 수업시간에 핵·미사일 원리 교육”(연합뉴스)
 - 북한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시간에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9일 보도함.
 - 북한의 고급중 3학년(우리 고3에 해당) 물리 교과서에는 '원자의 구조와 핵에너지(에너지)'라는 제목과 함께 원자탄과 수소탄, 중성자탄 등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게재돼 있다고 방송은 보도함.
 - 물리 교과서는 또 '로켓(로켓)의 원리'에서 운반 로켓의 비행 원리, 구조 등을 보여주고, 해당 코너에 '100% 북한 기술과 지혜로 과학기술위성 제작과 발사에 성공했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발언을 포함함.

2017. 4. 12.

- 北 고려호텔 구소련 스타일 벗고 리모델링 재개장(연합뉴스)
 - 12일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과 외신 등에 따르면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 동흥동에 위치한 고려호텔이 1~3층 영업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마감하고 지난 10일 재개장함.
 - 고려호텔은 객실을 제외한 1~3층 영업시설을 수개월 동안 폐쇄하고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AP 통신은 지난 11일 평양발로 "80년대 소비에트 스타일로 지어졌던 고려호텔이 최근 보수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했다"면서 "보다 밝은 분위기와 현대적 감각을 살려냈기 때문에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는 외국인들은 실망할 수 있다"고 평가함.

■ **北김일성대, 올여름 외국인 상대 ‘한국어 서머스쿨’ 개최(연합뉴스)**

- 12일 영국의 북한관광 전문 여행사인 주체여행사(Juche Travel Services)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일성대는 오는 7월 2일부터 24일까지 3주 기간의 한국어 집중 학습 '서머스쿨'을 개최함.
- 연수 참가자들은 김일성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일일 어학수업 이외에도 문화 활동과 관광 등에 참여하게 된다고 여행사는 밝혔으며, 프로그램의 일부로 개성과 비무장지대(DMZ), 묘향산과 국제친선전람관, 원산 등으로 주말여행이 포함 되어 있음.
- 1인당 참가비는 1천999유로(242만원)로, 주체여행사가 이메일을 통해 참가자를 접수하고 있음.

2017. 4. 13.

■ **“北 장애인학생들, 다음달 영국 공연…비판 목소리도”(연합뉴스)**

- 다음 달 예정된 북한 장애인 학생들의 영국 공연을 두고 북한 당국이 이들을 체제선전과 외화벌이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방송은 영국의 한인 민간단체인 '두라 인터내셔널'을 인용해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이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영국을 방문해 예술공연을 펼친다"고 보도함.
- 20명 공연단으로 구성된 북한의 10대의 장애인들은 영국 옥스퍼드대학을 시작으로 왕립음악대학, 케임브리지대학 등에서 모두 4차례 공연할 예정임.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4. 8.

■ **北리종혁, IPU 총회서 美에 대북정책 전환 촉구(연합뉴스)**

- 방글라데시에서 지난 4일 열린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 북한 대표로 참가한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고 북한 매체가 8일 보도함.

- 리종혁은 연설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는 핵 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자중 자숙하여야 하며 전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교훈을 찾고 정책 전환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리종혁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악랄한 경제제재 책동과 전쟁연습에 매달리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사족하여 우리를 완전히 질식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 美 시리아 공격에 첫 반응…“그에 놀랄 우리가 아냐”(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수리아(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은 주권국가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략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이번 군사적 공격이 우리를(북한을) 노린 그 무슨 '경고성' 행동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미국의 침략과 간섭책동이 극도로 오만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오늘의 현실은 힘에는 오직 힘으로 맞서야 하며 핵무력을 비상히 강화해온 우리의 선택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우리는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의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2017. 4. 9.

■ **트럼프 정부 “北 태도변화 없는 한 대화 없다…北-中제재 강화”(연합뉴스)**

- 렉스 티러슨 국무, 스티븐 므누신 재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3명의 핵심 각료는 이날 플로리다 주(州)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브리핑하면서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재천명함.
- 티러슨 장관은 "평화적 해결이 가능해지려면, 즉 (북한과의) 어떤 대화와 논의의 기반이 마련되려면 북한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발언함.

2017. 4. 10.

■ **美NSC 보좌관 “트럼프, 모든 대북 옵션 준비 지시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마련해 둘 것을 지시했다고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9일(현지시간) 발언함.
-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의 역대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full range)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언함.
- 그는 "북한이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 정권"이라고 비판함.

■ **조선신보, 美항모 한반도 재전개에 “날강도식 위협공갈”(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0일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전개에 "날강도식 위협 공갈"이라고 주장함.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날 '트럼프식 압박술과 조선(북한)의 자위적 선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조선반도 수역에 출동시켰다"고 보도함.
- "조선은 미국의 공갈과 위협에 겁을 먹고 자기 하던 일을 멈추거나 그만둔 일이 없다"면서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망동이 더욱 무모한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초강경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함.

2017. 4. 11.

■ **美국무부 “北과의 대화재개 조건 불변…비핵화-WMD 포기 필요”(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 조건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11일 보도함.
-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이 대화 재개의 조건'이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변함.
-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안보와 경제 발전은)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포기로만 이룰 수 있다"면서 "그리고 나서야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함.

2017. 4. 12.

■ 백악관 “트럼프 행동할때 시리아처럼 단호하고 비례적으로 대응”(연합뉴스)

-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그들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그런 행동(도발)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발언함.
-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시리아(미사일 폭격) 때 보여줬듯이 가까이 행동에 나설 때는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단호하게, 그리고 (도발에 대해) 비례적으로 대응한다"고 발언함.
-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그들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행동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해 밝혀왔다"고 재차 거론하면서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이 바로 미국 본토 해안까지 위협하는 핵보유국 북한이다. 우리는 역내 안정이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점을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함.

■ 트럼프 “김정은 큰 실수하고 있다…美군대, 지구 최강”(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방영되는 미 폭스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우 강한 함대(칼빈슨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항공모함보다 강한, 매우 강력한 잠수함을 갖고 있다"고 발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구에서 최강의 군대를 갖췄다"며 "그(김정은)는 잘못된 일을,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발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군사적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며, "난 오바마와는 다르다. (전임 정부는) 녀 달 동안 (이라크) 모술을 치겠다고 말해서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줬다"고 발언함.

2017. 4. 13.

■ 백악관 대변인, 북핵 질문에 “트럼프는 단호하게 조치”(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 손 스파이서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 신문박물관인 '뉴지엄'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현 정부와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점은 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미국이 지난 6일 단행한 시리아 미사일 공격을 거론하며, 북핵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발언함.

- 스피커서 대변인은 "지난주 목요일(시리아 공격)로 되돌아가 보자. 전임 정부는 6년 넘도록 '레드라인'(금지선)만 긋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조치를 했다"고 발언함.
- 그는 또 "북한을 고립시키고, 미국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발언함.

■ 北 “美, 조선반도를 핵전쟁 접경으로 몰아가”(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으로 인해 조선반도에는 언제 어느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함.
- 연구소는 "미국이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으며 주권 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위협 행위를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 있다"며 최근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폭격을 비난함.
- 또한 "동맹국인 남조선 괴뢰들이 미사일을 개발하든 간첩 위성을 발사하든 아무 일 없고 자주적인 나라들(북한·시리아)에는 온갖 딱지를 다 붙이는 미국의 불공정한 침략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함.

나. 북·중 관계

2017. 4. 11.

■ 우다웨이 “中 어떤 경우든 북한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10일 한중협의회 때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또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11일 발표함.
- 우 대표는 전날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및 만찬, 운병세 외교장관 예방 등 계기에 이같이 밝히며 북한 비핵화 목표를 실현키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함.
- 우 대표는 또 "핵보유는 결코 문제 해결의 출구가 될 수 없음을 북한에 인식시켜

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만약 국제사회의 단호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데 한국과 입장을 같이 했다고 조 대변인은 발표함.

2017. 4. 13.

■ 中외교부 “북중, 정상적인 왕래유지”…우다웨이 방북가능성 시사(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한국을 방문중인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을 시사함.
-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14일 평양에 갈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적인 왕래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당신에게 제공할만한 정보가 없다"고 발언함.
-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으로서는 미·중 정상회담과 한국을 방문한 결과를 북측에 설명하고 핵실험 자제를 설득할 필요가 있어 우다웨이 특별대표 또는 그 이상 고위급이 조만간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함.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4. 11.

■ 동병상련?...美입박에 김정은-아사드 '격려성 축전' 교환(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 주석의 105돌 생일(태양절)과 김정은의 노동당 제1비서 및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5주년을 맞아 알 아사드 대통령이 지난 9일 김정은에게 2건의 축전을 보냈다고 11일 보도함.
- 아사드 대통령은 태양절 축전에서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는(중략)...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저들의 팽창주의적이며 지배주의적인 정책에 북중시키고 이 나라들의

자결권을 빼앗으려는 열강들의 야욕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함.

- 김정은은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으로 국제적 파문이 일던 지난 6일 아사드 대통령에게 시리아 집권당인 바트당(아랍사회주의 부흥당) 창건 70주년 기념 축전을 보낸 바 있음.

■ 남아공 “北 외교관 줄이고 금융계좌 감시 강화”(연합뉴스)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 수를 줄이고 이들의 금융계좌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남아공은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관에 참사관 직책을 없애고, 공사 직책을 2등 서기관 직책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보도함.
- 남아공 연방준비은행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이용해 북한에 대한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4. 12.

■ 北, 국방비 비중 유지…핵 개발 미완성 사실상 ‘시인’(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13기 5차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배분하면서 국방비 비중을 작년과 똑같이 책정함.
- 북한 노동신문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기광호 재정상은 전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작년 예산지출 내용을 보고하면서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장엄한 서막을 열어젖힌 지난해에 지출 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돌렸다"고 보고함.
- 비중은 작년과 같지만, 올해 예산지출 총액이 작년보다 5.4% 더 늘어나는 만큼 실제 국방비 지출액도 작년보다 5.4% 증가하게 됨.

2017. 4. 13.

■ “北, 예비군 조직도 군사훈련 동원…경계태세 강화”(연합뉴스)

- 북한이 이달 초부터 예비군 조직을 군사훈련에 동원하면서 내부 긴장을 고조시키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의 대북 매체를 인용해 13일 보도함.
- 북한 내부 사정을 취재하는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

내부자가 전해온 내용이라며 "(북한이) 군대가 아닌 민간무력 등을 총동원해서 전쟁에 대비하는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RFA에 제보함.

- 북한 당국은 한국과 미국이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면 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기관과 기업소들에 지시했다고 아시아프레스 측은 RFA에 제보함.

■ IAEA 사무총장 “북한, 핵개발 활동 꾸준히 진행…긴장 높아져”(연합뉴스)

-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개발) 활동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NHK가 13일 보도함.
- 일본을 방문 중인 아마노 사무총장은 전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영변에 있는 핵시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 농축시설로 보이는 건물이 배가 됐고, 그 주변에는 부속건물이 건설되고 있다"고 발언함.
-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은 한다고 말한 것을 확실히 실행하고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이 문제를 지켜봤지만, 긴장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함.

■ 美매체 “北풍계리 핵실험장 준비 완료”…15일 김행하나(연합뉴스)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13일 발표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 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이날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해 핵실험장이 "장전, 거중"(Primed and Ready) 상태라고 발표함.
- 38노스는 지난 12일자 사진 분석 결과 "북쪽 갯도 입구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주(主) 지원본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됐으며, 지휘통제소 주위로 사람 몇몇이 보였다"고 설명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4.10	국방부 “美 핵항모 전개, 北 핵실험 등 도발 대비 차원”(연합뉴스)	
	4.11	한미 국방당국 고위급 협의…“北 위협에 공조 강화”(연합뉴스)	
한중 관계	4.10	한중, 北핵실험시 ‘강력 추가조치’ 합의…사드 입장차 재확인(연합뉴스)	
	4.11		우다웨이 “비핵화 돌파구 만들려면 상호 우려 논의해야”(연합뉴스)
한일 관계	4.10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이달 하순 도쿄서 개최”(연합뉴스)	
	4.10		日관방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재개 생각 없다”(연합뉴스)
	4.12		日 정부 “한국 체류 일본인 대피 태세, 미리 준비하겠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4.8	트럼프-시진핑 “북핵 심각한 단계…억제위해 협력강화” 합의(연합뉴스)	
	4.10		중외교부, 美갈빈슨 항모 한반도 재출동에 “긴장고조 말라”(연합뉴스)
	4.11	트럼프 “중국이 돕지않는다면 그들 도움없이 北문제 해결”(연합뉴스)	
	4.12		시진핑, 트럼프에 “북핵 평화적 해결 견지…美와 협조 희망”(연합뉴스)
	4.13	트럼프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안 한다”(연합뉴스)	중외교부, 미·중 정상통화에 “북핵 대화로 해결 입장 불변”(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4.9	트럼프-아베 또 전화통화…“北대응에 한미일 결속 중요”(연합뉴스)	
	4.10		日관방 “美, 시리아공습으로 북한 압박한 걸 높이 평가”(연합뉴스)
	4.12	美日경제대화 앞서 신경전…무역적자 해소 vs 인프라 투자(연합뉴스)	
	4.13		‘위기관’ 확산하는 日 “美항모등서 北공격때도 협의요청…美수용”(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4.11	美 상원 군사위원장 “러, 시리아 화학무기공격 협력”(연합뉴스)	
	4.12	백악관 “러시아, 시리아 정권 화학무기 공격 숨기려 해”(연합뉴스)	
	4.3	미·러 외무 “北비핵화 공감… 한반도 문제 평화해결 열망 확인”(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4.12	"러 군용기 6대, 日 주변 접근에 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연합뉴스)	
		아베, 이달 27~28일 러시아 방문...푸틴과 공동경제활동 협의(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4. 10.

■ 국방부 “美 핵항모 전개, 北 핵실험 등 도발 대비 차원”(연합뉴스)

- 국방부는 10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의 한반도 주변 해역 전개가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전략적 수준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칼빈슨호 전개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미국이)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도발, 특히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다"고 답함.
- 문 대변인은 칼빈슨호의 움직임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4월 김일성 생일, 북한군 창건일 등 여러 정치 일정이 있다는 점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함.

■ 한반도 긴장 속 한미 軍, 최대 규모 전쟁물자 보급훈련(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군이 10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유사시 전쟁물자의 후방 보급을 위한 대규모 군수지원훈련을 시작함.
- 군 관계자는 "우리 군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늘부터 이달 21일까지 포항 도구 해안에서 '퍼시픽 리치 작전'(OPR: Operation Pacific Reach)이라는 명칭의 연합훈련을 한다"고 밝힘.
- 이번 훈련에는 해외 증원전력을 포함한 미군 약 2천500명과 우리 군 약 1천200명의 병력이 참가하며, 한미 군은 유사시 공중, 지상,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을 모두 활용해 양국 군의 병참 능력을 통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임.

2017. 4. 11.

■ **한미 국방당국 고위급 협의…“北 위협에 공조 강화”(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11일 고위급 국방당국간 유선 협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함.
- 국방부는 "위승호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 대리는 오늘 유선 협의를 통해 지난 주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후속 협력 방안,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동맹의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위 실장과 헬비 차관보 대리는 북한의 지난 5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함.

나. 한·중 관계

2017. 4. 10.

■ **한중, 北핵실험시 ‘강력 추가조치’ 합의…사드 입장차 재확인(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강력한 추가적 조치를 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소개하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 등을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임.
-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 도발시 한중이 추진기로 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강력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4차(작년 1월) 및 5차 핵실험(작년 9월)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 이상으로 강력한 새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임.

2017. 4. 11.

■ 우다웨이 “비핵화 돌파구 만들려면 상호 우려 논의해야”(연합뉴스)

-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때 "비핵화 논의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안보상 우려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11일 파악됨.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 대표는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때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편.
- 비핵화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병행하지는 기존 중국의 입장을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이후에도 재확인한 것임.

다. 한·일 관계

2017. 4. 10.

■ 日관방, 美핵무기 韓배치론에 “일본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0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핵무기의 한국 배치론에 대해 "단순히 한국과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가 장관은 이날 중의원 위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대책 가운데 한국에 미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미 NBC 방송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보도를 통해서 밖에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답함.
- 이는 핵무기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아직 찬반 입장을 일단 밝히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됨.

■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이달 하순 도쿄서 개최”(연합뉴스)

- 북핵 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일이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이달 하순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함.
- 신문은 북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한미일이 북한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협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함.
- 한미일은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3국 공동의 대북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2017. 4. 12.

■ **日 정부 “한국 체류 일본인 대피 태세, 미리 준비하겠다”(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평시에 미리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체류하는 일본인의 보호와 대피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 평시부터 필요한 준비와 검토를 행하겠다"며 "어떠한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함.
- 이날 발언은 미국 정부가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일본 정부에 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 뒤 나온 것임.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4. 8.

■ **트럼프-시진핑 “북핵 심각한 단계…억제위해 협력강화” 합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석 달 만에 이뤄진 '세기의 담판'을 위해 두 정상은 미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부인들과 함께 24시간 머물며 모두 3차례 만나 적절한 '대국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북핵과 무역 등 최대 갈등 현안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치열한 탐색전을 벌임.
- 세기의 회담으로 큰 관심이 쏠렸던 G2(주요 2개국) 정상의 첫 '대좌'는 그러나 전날

미국의 대대적이고 전격적인 시리아 공습에 묻혀 상대적으로 맥이 빠졌으며 결과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옴.

2017. 4. 10.

■ **중외교부,美칼빈슨 항모 한반도 재출동에 “긴장고조 말라”(연합뉴스)**

-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를 떠난 지 보름여 만에 재출동하자 중국 정부는 유관 각국이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10일 밝힘.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국으로 향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말해달라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 화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상황 아래 유관 각국이 자제를 유지해야 하고 지역 긴장의 정세를 고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2017. 4. 11.

■ **트럼프 “중국이 돕지않는다면 그들 도움없이 北문제 해결”(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또다시 미국의 대북독자 해법을 강조하며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섬.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은 문젯거리를 찾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돕기로 한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며, 만약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글을 올림.
- 그는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힘.

2017. 4. 12.

■ **시진핑, 트럼프에 “북핵 평화적 해결 견지…美와 협조 희망”(연합뉴스)**

-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로 향해 위기지수가 한껏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함.
- 미중 정상의 이날 전화통화는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북한이

- 6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자제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CCTV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견지하는 한편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강조함.

■ **중외교부, 미·중 정상통화에 “북핵 대화로 해결 입장 불변”(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미중 정상이 12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힘.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불과 며칠 만에 전화 통화를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함.
- 루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대북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에 대해 "오전 통화 중에 양국 정상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2017. 4. 13.

■ **트럼프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안 한다”(연합뉴스)**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몇 개월 동안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를 위협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임.

나. 미·일 관계

2017. 4. 9.

■ **트럼프-아베 또 전화통화…“北대응에 한미일 결속 중요”(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오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간의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미군에 의한 시리아 미사일 공격에 관해 설명함.
- 아베 총리는 전화 통화 후 기자들을 만나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서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45분에 걸쳐 시리아, 북한에 대해 솔직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함.

2017. 4. 10.

■ 日관방 “美, 시리아공습으로 북한 압박한 걸 높이 평가”(연합뉴스)

-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0일 시리아 공습을 통해 북한을 압박한 미국을 지지한다고 밝힘.
-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자세를 보인 데 대해 우리나라(일본)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함.
- 이 발언은 북한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 규범과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타국에 위협이 되면 어느 시점에 대응이 시작된다"는 렉스 텔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스가 장관은 또한 미국의 시리아 미사일 공격과 관련,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고 언급함.

2017. 4. 12.

■ 美日경제대화 앞서 신경전…무역적자 해소 vs 인프라 투자(연합뉴스)

- 18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경제대화를 앞두고 양측의 기선제압 신경전이 뜨겁음.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일본은 인프라 투자 협조를 각각 주요 의제로 내세우려 함.
- 사전 조정을 통해서 미국은 무역 분야를 중시한다는 생각을 통했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문제를 주요 의제에서 빼자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양측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 중임.
- 이번 회의에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일본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짐.

2017. 4. 13.

■ ‘위기론’ 확산하는 日 “美항모등서 北공격때도 협의요청…美수용”(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양국 안보조약에 명시된 주일미군의 전투 행동 이외 경우에도 사전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수용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미일 안보조약에 관해 양국이 교환한 공문에선 주일미군이 '전투작전 행동'을 위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시행하는 것으로 있고, 따라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의 함재기나 구축함 등에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주일미군 기지는 사용하지 않게 돼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임.
- 방위성 간부는 "주일미군 기지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게 되면 일본이 보복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해 일본 정부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에 사전협의를 요청한 것임을 시사함.

다. 미·러 관계

2017. 4. 11.

■ 美 상원 군사위원장 “러, 시리아 화학무기공격 협력”(연합뉴스)

-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은 10일(현지시간)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러시아가 협력했다고 주장함.
- 세르비아를 방문 중인 매케인 의원은 이날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러시아와 시리아가 정확히 같은 기지에서 작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화학무기에 관해 알고 있었다고 믿는다"고 말함.
- 그는 "미국은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시리아 기지를 겨냥해 지난주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러시아와 시리아가 함께 협력해서 한 게 분명한 이 행동이 결코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2017. 4. 12.

■ 백악관 “러시아, 시리아 정권 화학무기 공격 숨기려 해”(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 러시아가 숨기려 한다고 비난함.
-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을 담은 4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한 동맹 시리아 정권을 "방어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난함.
- NSC는 피해자들이 보인 증상을 볼 때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사린가스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미 정보당국이 확인했다고 강조함.

2017. 4. 13.

■ 미·러 외무 “北비핵화 공감·한반도 문제 평화해결 열망 확인”(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 외무 수장은 1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신뢰 수준이 위험할 정도의 낮은 수준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나, 시리아 사태 등 국제 현안과 관련해선 기존 이견을 확인하는 선에 그침.
- 양국 장관은 이날 저녁 늦게 회담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설명하면서 시리아·우크라이나·북한 문제 등 국제현안과 양자관계, 사이버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힘.
-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에서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모든 뉘앙스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전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공통의 열망이 있다. 이 같은 열망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함.

라. 중·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7. 4. 12.

- “러 군용기 6대, 日 주변 접근에 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연합뉴스)
 - 러시아 폭격기와 초계기 등 6대가 지난 11일 동해와 태평양을 거의 동시에 비행,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했다고 NHK가 12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러시아군의 TU95 폭격기 2대가, 오후에는 IL38 초계기 2대가 홋카이도(北海道) 앞바다에서 동해 상공으로 남하했으며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러시아군의 TU142 초계기 2대가 일본 인근 태평양 상공을 비행함.
 - 이들 중 동해 상에서 확인된 4대는 이시카와(石川) 현 노토(能登)반도 앞바다에서, 태평양 상공에서 확인된 2대는 도쿄(東京)의 이즈(伊豆)제도 앞바다에서 각각 유탄해 홋카이도 앞바다를 지나 러시아 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짐.

- 아베, 이달 27~28일 러시아 방문…푸틴과 공동경제활동 협의(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27~28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2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전 중의원 의원은 전날 이고리 모르쿨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힘.
 - 아베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구체적인 공동경제활동 방안과 과거 이 지역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항공기를 이용한 방문 등에 대해 협의할 전망이다.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4.8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북한에 여성인권 정보 요청(미국의소리)
	4.11	"폴란드 지방정부, 작년 北노동자 360명에 노동허가증"(연합뉴스)
	4.11	영국의회, 내달 대규모 북한인권 국제회의(자유아시아방송)
	4.12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하원외교위 발의(자유아시아방송)
	4.12	앰네스티 '북한, 공정한 재판 없이 사형집행 계속'(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4.11	캐나다 이민장관, '제 3국 탈북자 직접 수용' 검토(자유아시아방송)
	4.12	아베 "일본인 납북자 구출, 美에 협력 요청"(연합뉴스)
	4.13	"세계탈북자총회 오는 25일 벨기에에서 개최"(연합뉴스)
	4.13	하나재단, 결핵협회와 MOU..."탈북민 결핵관리 협력"(연합뉴스)
대북지원	4.7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두 달 북과 교역 '0' (자유아시아방송)
	4.11	유엔 '올해 대북 지원자금 6.5% 모금'(미국의소리)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4. 8.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북한에 여성인권 정보 요청(미국의소리)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북한의 국가보고서와 관련한 현안과 질문 목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여성인권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함.
- 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가정폭력 사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들로 기소되고 유죄를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음.
- 아울러 북한에서 연간 강간과 매춘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와 인신매매와 강제매춘 희생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도 요청함.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앞서 북한이 지난해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이번에 북한에 요청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오는 10월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리는 68차 회기에서 북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할 예정임.

2017. 4. 11.

■ "폴란드 지방정부, 작년 北노동자 360명에 노동허가증"(연합뉴스)

- 폴란드 중앙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북한 노동자의 입국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지방 정부는 지난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음.
- 이와 관련해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 국장은 이 매체에 지난해 북한 노동자 400여 명을 고용한 15곳의 폴란드 기업을 상대로 감찰을 시행했다고 밝혔음.
- 2015년 유엔이 내놓은 북한 인권보고서는 북한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북한 노동자가 5만 명이 넘고 북한 정부가 해외 노동자 임금에서 빼내 조성하는 외화 규모가 연간 최대 23억 달러(2조6천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음.

■ 영국의회, 내달 대규모 북한인권 국제회의(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는 다음달 18일 영국 의회에서 대규모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음.
- 공동위원회 사무국의 제임스 버트 씨는 정치인,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대표,

- 탈북자, 학자 등 140여 명이 참석 예정인 이번 회의에서 특히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과 북한 내 정보 유출 문제와 유엔 인권 보호 기관 등의 북한 어린이 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에 대한 토론포도 있을 계획임.
 - 이번 행사는 상하원공동위원회 이외에도 영국의 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함.

2017. 4. 12.

■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하원외교위 발의(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로스 레티언 하원의원 등은 지난 6일 2004년 처음 제정돼 5년 주기로 연장돼 온 북한인권법을 재연장하기 위한 재승인법안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함.
- 레티언 소위원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안은 북한 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외부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북한 체제로부터 도망쳐 나온 탈북 난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 재승인 법안이 채택되면 2022년까지 현재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시행되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활동, 탈북 난민 보호, 방송 등 정보의 북한 유입 등의 활동을 지속 지원할 수 있고 북한인권특사도 유지됨.

■ 엠네스티 '북한, 공정한 재판 없이 사형집행 계속(미국의소리)

-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1일 발표한 '2016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전세계 23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 없이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한이 국제적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형이 선고돼서는 안 되는 여러 종류의 범죄나 행동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4. 11.

■ 캐나다 이민장관, '제 3국 탈북자 직접 수용' 검토(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 아메드 후센 이민장관이 태국 등 제3국에서 탈북난민들을 직접 수용하는 문제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캐나다 북한인권단체인 한보이스 측이 밝혔다.
- 후센 이민장관은 “북한인권과 탈북난민들에 대한 중국의 강제송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돕고 싶지만 캐나다 이민장관으로서 미얀마, 시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난민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지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캐나다라는 난민자격으로는 한 명의 탈북난민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것은 캐나다가 작년에 2만 5천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인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예임.

2017. 4. 12.

■ 아베 “일본인 납북자 구출, 美에 협력 요청”(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평시에 미리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미국 정부가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일본 정부에 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 뒤 나온 것임.
-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자민당의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납치문제담당상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가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납북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미국측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야마타니 담당상은 이날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 일본인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 일본인 구출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북한 간부와 기업의 자산동결 대상자를 확대할 것을 제언했음.

2017. 4. 13.

■ “세계탈북자총회 오는 25일 벨기에에서 개최”(연합뉴스)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세계탈북자총회'가 오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음.
-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탈북민연대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가 이번 회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음.
- 김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도록 촉구하는 문제 외에 북한의 해외노동자 인권과 탈북민 강제복송 문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 등도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하나재단, 결핵협회와 MOU...“탈북민 결핵관리 협력”(연합뉴스)

-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13일 탈북민 결핵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음.
-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내 거주 탈북민들에 대한 결핵 관리 및 건강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관련 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됨.
- 손광주 하나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탈북민에 대한 공공의료지원이 강화돼 이들의 안정적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음.

5. 대북지원

2017. 4. 7.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두 달 북과 교역 '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까지 두 달 동안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북한에서 들여온 수입이 전혀 없다고 밝혔음.
-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첫 두 달 동안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한 모든 미북 교역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음.
- 상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10만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지원품이 북한에 전달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달 연속 미북교역은 전혀 없었음.

-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2017. 4. 11.

■ 유엔 '올해 대북 지원자금 6.5% 모금'(미국의소리)

-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1억1천4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분기 현재 모금은 6.5%에 그쳤다고 유엔이 밝혔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7일 발표한 '인도주의 자금 모금현황' 보고서에서, 3월 31일 현재 모금된 대북 지원 자금은 740만 달러라고 밝혔음.
- 보고서는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1천3백만 명의 북한 주민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이 가운데 60%인 6천900만 달러는 주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과 식량 증산 활동에 사용되며, 보건, 식수 위생 사업 등도 진행할 예정임.